

For the 2023 edition of Frieze Seoul, Galerie Quynh is thrilled to present work by Do Thanh Lang and Will Thurman - two young artists who are among the most original painters of their generation. Both artists make raw, disquieting works that oscillate between bleakness and lightness. Do works with acrylic, epoxy resin and plastic to create roughly layered yet dreamy compositions depicting figures that appear frozen in various states of unease. Thurman's oil paintings belong to an ongoing series called 'Life Paintings' and reflect life in all its absurdity, outrageousness, mischievousness and hysteria.

갤러리 꾸인(Galerie Quynh)이 프리즈 서울 2023에서 동시대 젊은 화가 중 가장 개성 넘치는 도 탄 랑(Do Thanh Lang)과 윌 서먼(Will Thurman)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두 명의 아티스트는 음울함과 밝음 사이를 오가는 낯익은 불온한 작품을 만듭니다. 아크릴릭과 에폭시 수지, 플라스틱이 사용된 이들의 작품은 거칠게 층을 이루면서도 몽환적이며, 다양한 불안 속에서 꿈쩍 못하는 듯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서먼의 유화는 진행 중인 "삶의 그림(Life Paintings)" 연작의 일환으로, 삶의 부조리함, 난폭함, 해로움과 히스테리를 반영합니다.

# FRIEZE SEOUL

GALERIE QUYNH - BOOTH A11

6 - 9 SEPTEMBER 2023

DO THANH LANG & WILL THURMAN

## DO THANH LANG

[Vietnamese, b. 1986]

Approaching art practice with a rare instinct - visible through the craggy edges of his canvases, or the occasional insect fossilised by his resin pour - Do Thanh Lang is aptly positioned to extract lightness from a dire situation. Dreamlike in all their hazy strangeness, his artworks are akin to pieces of a memory - a visual journal of altered consciousness. Not without humour, of a dark kind, Do's works center around fragments of images and stories churned out by the gigantic machine that is Vietnamese online media. Just as one's disposed garbage can speak volumes about how one lives, these images - likened by Do to 'virtual trash' - remind us that apathy is one of the world's gravest dangers.

Born in 1986 in Ho Chi Minh City, Do Thanh Lang studied painting at the Ho Chi Minh Fine Arts University. His work has been shown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 Vietnam and regionally, such as Salt of the Jungle, Korea Foundation Gallery, Seoul, Korea and Vietnamese Women's Museum, Hanoi, Vietnam; Modern Wind, HCMC Fine Arts Association, Ho Chi Minh City, Vietnam; My Eldest Sister, San Art, Ho Chi Minh City, Vietnam; Fall, Café Tram, Ho Chi Minh City, Vietnam; Out of Nowhere, Sao La, Ho Chi Minh City, Vietnam; Art Walk, numerous venue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and fluorescent fog (curated by Arlette Quynh-Anh Tran), Lunar Breccia, Alluvium, song of the cicada among summer poppies, Hopsotch and NGUCHONOBAY (curated by Sao La) at Galerie Quynh, Ho Chi Minh City, Vietnam.

Do has also participated in Spot Art Singapore 2014 (ARtrium @ MCI, Singapore) and undertaken the residency program Brown Movement at Heritage Space in Hanoi. Do lives and works between Hanoi and Ho Chi Minh City.

## 도 탄 랑 (DO THANH LANG)

[베트남 국적, 1986년 출생]

도 탄 랑(Do Thanh Lang)은 울퉁불퉁한 캔버스 끝자락이나 그가 가끔 레진을 부어 만드는 곤충 화석에서 엿볼 수 있듯, 보기 드문 직감으로 예술에 접근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모호하고 기묘하며 몽환적인 그의 작품은 기억의 조각과 비슷하며, 변성 의식 상태를 그려낸 일기와 같습니다. 다크 유머도 담긴 도의 작품은 베트남 온라인 미디어라는 거대한 기계가 찍어낸 이미지와 이야기의 조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듯이, 도가 '가상 쓰레기'에 비유한 이 이미지들은 무관심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1986년 호치민에서 태어난 도 탄 랑은 국립 호치민 미술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도의 작품은 베트남 및 현지의 여러 그룹 전시에 출품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정글의 소금(한국국제교류재단 갤러리, 대한민국 서울 및 베트남 여성 박물관, 베트남 하노이), 현대적 바람(HCMC 순수 미술 재단, 베트남 호치민), 나의 큰누나(산 아트, 베트남 호치민), 가을(카페 짬, 베트남 호치민), 난데없이(사오 라, 베트남 호치민), 미술 산책(베트남 호치민의 다양한 장소), 형광 안개(알렛 퀴안 트안(Arlette Quynh-Anh Tran) 큐레이션), 루나 브레치아, 총적도, 여름 양귀비 사이 매미의 노래, 흡스카치와 아무 데나 잠들기(NGUCHONOBAY)(사오 라(Sao La) 큐레이션)(갤러리 꾸인, 베트남 호치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는 Spot Art Singapore 2014 (ARtrium @ MCI, Singapore)에 참여했으며, 하노이 Heritage Space에서 브라운 무브먼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오가며 생활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Untitled*  
무제  
2023  
oil, acrylic, epoxy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에폭시  
100 x 115.5 cm



*Untitled*  
무제  
2023  
oil, acrylic, epoxy resin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에폭시 레진  
115 x 100 cm



*Untitled*  
무제  
2022  
oil, acrylic, epoxy resin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에폭시 레진  
70 x 130 cm



*Untitled*  
무제  
2022  
oil, acrylic, acrylic resin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아크릴릭 레진  
115 x 115 cm



*Untitled*  
무제  
2022  
oil, acrylic, epoxy resin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에폭시 레진  
115 x 115 cm



*Red leather, Warthogs, and Wandering Monks past Midnight*

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붉은 가죽, 흑 멧돼지와 자정을  
지나 떠도는 승려들  
2021



*The Association of Wild Rabid Animals*

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광견병 감염 야생동물 협회  
2021



*Arriving on Fate*

운명으로의 도착

2022

oil, charcoa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목탄  
100 x 110 cm

**WILL THURMAN**

[American, b.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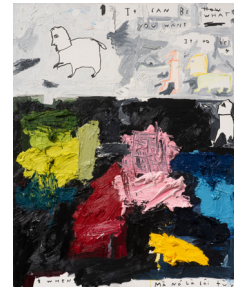
Populated with hybrid characters - creatures part human, part animal, part object - Will Thurman's paintings reflect a disorienting state of existence; the deluge of storylines makes it difficult to tell which way is up. Thurman sends us tumbling through a parallel universe not quite distinct from ours, where the comedic blends with the downright bleak and sadistic. Many of his canvases contain paintings within paintings - mise en abyme that draw attention to the plethora of lenses through which a single story can be told - and retold, and retold. Thurman is meticulous in his expression; for the artist painting is disciplined, routine labor. Yet despite such control over his own practice, his artworks offer a singular freedom: to place oneself within his scenes, navigate the topsy-turvy landscape, and intervene in their happenings.

Will Thurman (born 1989, New York) received his academic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in the U.S.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2009, he moved to Vietnam and worked as a reporter for a local crime tabloid sometimes taking assignments in Cambodia where he also boxed semi-professionally. Thurman has lived in many regions of Vietnam and while preferring the countryside, he is currently based in Ho Chi Minh City.



*Savagery*

야만성  
2020  
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130 x 130 cm



*The Elusiveness of Freedom*

자유의 모호함  
2022  
oil, charcoal, penc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목탄, 연필  
90 x 70.5 cm



*Speeding car on CA-HW1 cascades into concrete barrier, and Hippopotamus unknowingly wades in front of waterfall*

고속으로 콘크리트 장벽에 추락하는  
CA-HW1 차량, 멧돼지고 폭포 앞에서  
걸어가는 히포포타머스

2022 oil on canvas  
90 x 70.5 cm 캔버스에 유채

**윌 서먼 (WILL THURMAN)**

[미국 국적, 1989년 출생]

사람, 동물이자 물체이기도 한 혼종이 잔뜩 등장하는 윌 서먼의 그림은 존재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반영하며, 그의 쏟아지는 스토리라인은 길을 잃게 합니다. 서먼은 우리를 희극적인 부분과 그저 음울하고 가학적인 부분이 어우러진,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평행 우주로 보내줍니다. 서먼의 캔버스 작품 다수에는 그림 속에 그림이 (즉, 미장아빰(이야기 속의 이야기)) 담겨 있어 우리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하기를 반복하는 수많은 렌즈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아티스트에게 그림이란 단련된 일상적인 노동인 만큼, 서먼은 표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서먼은 예술에 있어 자신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통해 한 가지 자유를 누립니다. 바로 그가 담아낸 풍광에 본인을 배치하고, 뒤죽박죽인 풍경을 탐험하며, 사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윌 서먼(1989년, 뉴욕 출생)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에서 수학과 2009년에 학업을 마친 다음 베트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현지 범죄 타블로이드지의 기자로 일하면서 때때로 캄보디아의 업무를 맡았으며, 캄보디아에서 세미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먼은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는 교외를 선호하지만, 현재는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It Already Happened. You Can't Stop It*

이미 벌어졌다.  
막을 수 없다  
2020  
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130 x 130 cm



*Prizefight from Downunder*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즈파이트  
2022  
oil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90.5 x 70.5 cm



## ABOUT GALERIE QUYNH

Recognized as Vietnam's leading contemporary art gallery, Galerie Quynh has been actively promoting contemporary art practice in the country for over two decades. The gallery maintains a consistent and focused program promoting emerging, mid-career and established artists in Vietnam and internationally. Operating in a country that lacks a strong art ecosystem, the gallery is a hybrid space that serves its community through its public programs and support of art education. The gallery regularly collaborates with artists, curators, museums, and cultural organisation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o organise talks and lectures as well as produce publications in English and Vietnamese. In May 2014 the gallery founded the not-for-profit educational initiative Sao La directed by artists Tung Mai and Nguyen Kim To Lan. Sao La has since evolved into an independent artist collective spearheaded by To Lan and Dalat-based artist Nguyen Duc Dat. In summer 2020 with support from the Goethe-Institut, the gallery launched the not-for-profit CáRô, an educational initiative that provides art education for students aged 13-18 who show demonstrative interest in the arts.

## 갤러리 꾸인 소개

베트남의 선도적인 현대 미술 갤러리로 인정받고 있는 갤러리 꾸인은 베트남에서 20여 년 동안 현대 미술의 번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갤러리는 베트남과 전 세계의 신진, 중견 및 기성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포커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탄탄한 미술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영되는 갤러리 꾸인은 공공 프로그램 및 미술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다면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갤러리는 현지 및 전 세계의 아티스트, 큐레이터, 미술관, 지역 문화 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대담과 강연을 진행하며, 영어 및 베트남어로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 갤러리는 아티스트 퉁 마이(Tung Mai) 및 응우옌 킴 투 란(Nguyen Kim To Lan)의 감독하에 비영리 교육 이니셔티브 사오 라(Sao La)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사오 라 이니셔티브는 토 란(To Lan) 및 달랏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응우옌 득 닷(Nguyen Duc Dat)이 주도하는 독립 예술가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갤러리는 2020년 여름에는 괴테 인스티튜트의 지원으로 예술에 관심을 보인 13세~18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비영리 교육 이니셔티브 카로(CáRô)를 선보였습니다.